

귀환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과 동아시아 인적교류*

채수홍**

1. 들어가는 말

자본과 노동의 국제 분업이 강화되는 필연적 추세로 인하여 이동한 자본은 물론이고 이주한 노동이 일으키는 사회정치적 문제가 세계 각국의 주요한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동아시아 내부에서 ‘국제노동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Frobel, Heinrichs, and Kreye 1980)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이동하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의 이주노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Smith 1996).

* 이 논문은 2006년도 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연구(BS0031)의 지원을 받았다. 본디 연구 보고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줄고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완성도보다 시도의 참신성을 평가하여 연구논문으로 게재하도록 허락해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또한 문화인류학의 시각에서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와 인적교류 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주신 점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한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교수

동아시아 이주노동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 EAC) 추진으로 상징되는 동아시아 역내 협력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발전국가론에 의존하여 개별적으로 경제성장을 추진해 오던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황인원 2006: 9-24).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외환위기가 일부 동아시아 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면서 역내 국가의 상호의존성이 확인되고, 세계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그 결과 1997년부터 동북아 3개국인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10개국의 정상회담(ASEAN+3)이 정례화 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 안보, 사회문화 분야의 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토론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2006: 1-9). 이에 조용하여 경제, 안보, 사회문화 차원의 협력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이주노동을 다루는 기존의 시각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기존의 시각은 거의 대부분 이주노동을 경제와 안보의 차원에서 거시적, 비경험적, 기능적, 실리적, 국가-엘리트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역내 국가와 자본이 경제성장을 위해 이주노동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거시적 지표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시각은 이주노동자가 이주노동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하는 의식이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갖는지 파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한 후 귀국한 베트남 노동자(이하 귀환노동자)’에 대한 현지연구를 토대로 역내 이주노동이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 차원의 노동력 이동에 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이주노동자의 이주동기와 원인을 사회경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경험의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설동훈 2000: 7-71 참조). 특히 동아시아 노동자들이 귀국 후에 갖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는 이주노동자가 이주대상국과 고국에서 각각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 하에 있으며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연계시켜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경험과 이에 기초한 정치의식이 동아시아 차원의 인적교류와 지역협력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룬다. 첫째, (귀환노동자를 포함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삶과 경험을 조망한다. 특히 이들을 불법체류하게 만드는 정치경제적 조건은 무엇이며 이들이 불법체류노동자로서 어떤 사회문화적 삶을 경험하는지 점검한다. 둘째, 귀환노동자가 베트남에서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 아래 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어떤 사회문화적 실천과 경험을 하는지 설명한다. 셋째, 귀환노동자가 양국을 오가며 겪는 이와 같은 초국가적인 경험이 이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역내 국가와 자본에 대하여 어떤 의식을 갖게 하는지 살펴본다.

2. 현지연구과정

연구자는 2006년 여름 우연히 지인인 베트남인 유학생의 소개로 서울의 왕십리에 살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를 만날 기회를 가졌다. 이때 대화를 나누면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삶이 미디어에서 피상적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수한 조건 하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서울과 경기 일원에 위치한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거주지 몇 곳을 참여관찰하고 길에서 만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귀국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과 한국인에 대하여 어떤 진술을

하게 될 것인지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현지연구에 착수할 기회가 2006년 10월에 찾아왔다. 한국의 국제노동재단 직원, 노동문제 전문가, 정부관료 등과 함께 4박 5일의 일정으로 호치민을 방문하여 세미나에 참석하고 베트남 노동유관기관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이때 이주노동자 문제를 담당하는 호치민 노동조합과 노동원호국의 관계자를 면접하면서 기본적인 정보를 획득하였다. 또한 현지의 지인들에게 본 조사를 위한 섭외를 미리 부탁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1월에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약 한달 동안 심층면접을 실시한 대상은 세 부류이다. 첫째, 호치민 노동조합, 노동원호국, 사회과학원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만나 베트남 이주노동의 역사와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다. 둘째, 한국에 이주노동자를 송출하는 회사와 한국어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이주노동의 제도적 문제와 이주노동자의 귀국 후의 생활에 대한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셋째,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소개받고 면접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유학을 왔다가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통역을 도왔던 지인의 인맥을 활용하여 적게는 3~4명씩, 많게는 7~8명과 함께 4회에 걸쳐 '집단토론(focused group discussion)'을 했다. 이때 얻은 정보를 토대로 토론에 참여했던 노동자의 집을 방문하거나 카페 등에서 개별적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표자가 궁금한 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대답할 수 있는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소개받아 면접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이주노동자들 사이에 상시적인 연락망이 있어 매일 2~3명의 면접대상을 섭외하여 2~4시간 정도의 면접을 계속할 수 있었다(표 1 참조).

이렇게 약 한 달여에 걸쳐 30여 명 이상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를 만나 다양한 내용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성, 연령, 지역, 체류기

〈표 1〉 면접 노동자의 신상

성별	연령			혼인 여부		귀국 후 주요직업	현재 직업	한국 체류 기간	배우자 직업
	40대	30대	20대	기혼	미혼				
남	10명	7명	없음	14명 (이혼 1)	3명	공장근로자(7) 자영업(3), 무 역업체(2), 베 트남회사사무 직원·한국업 체 영업사원· 유통 업체사 원·관광안내 원·한국식당 종업원(각 1)	무직(8), 한국공 장매니저(2), 관 광업·관광회 사원·베트남회 사매니저·베트 남회사사무직 원·자영업·공 장근무·한국학 원 근무(각 1)	최소 3년~ 최고 11년, 평균 7.7년	노점상·회 사원·자영 업(2), 미장 원·이민· 오토바이수 리점·공장 근로자·무 직(각 1), 미 상(3)
여	3명	9명	3명	10명	5명	공장근로자(8) 무직(4), 자영 업·한국가정 가정부·통역 (각 1)	무직(7) 공장근로자(4), 자영업·관광안 내원·대부업· 식당종업원(각 1)	최소 3년~ 최고 11년, 평균 7.3년	공장근로자 (4)*, 자영업 (3), 무직· 건설노동자 (각 2)

* 한국인 배우자 2인과 약혼자 1인 포함.

간 등을 고려하여 면접대상자를 정선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면접 대상자는 대부분 호치민과 인근에 사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의 기혼/미혼 남녀로서 적게는 3년 많게는 11년 정도 한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귀환노동자들이었다.

본 조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현지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귀환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삶과 이들이 귀국 후에 기억을 통해 재현하는 한국에서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에 대한 현지연구를 실시하려고 마음을 먹어보기도 했지만, 귀환노동자의 과거 한국에서의 삶을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삶을 통해 유추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다만 이러한 한계를 의식하여 한국에 살고 있는 귀환 노동자의 친구를 한 명 만나 면접을 실시한 적이 있고, 모 단체에서 장기간 베트남

노동자의 고충을 상담해 온 관련자를 만나 심층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이주노동자 관련단체의 자료와 신문보도를 최대한 수집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귀환노동자의 한국에서의 삶을 기술한 부분 중 일부는 귀환노동자의 진술과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자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귀환노동자의 진술에 따르면”이라고 부연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을 뿐이다.

3.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생산의 정치경제적 조건

연구자가 호치민에서 면접한 귀환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를 경험하였다. 연수를 보내 준 호치민의 한국기업으로 복귀한 미혼여성 한 명과 불법체류가 두려워 계약기간 내에 귀환한 미혼여성 한 명만이 예외였다. 전자의 경우 사범대학을 중퇴한 고학력자이고 능력도 있어 귀환한 뒤 회사중역의 비서 역할을 하며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를 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각종 통계를 유추하여 보아도 상당수의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계약기간 내에 불법체류를 선택하고 있다. 2006년 3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총 약 80만 명이며 이 가운데 90일 이상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53만 명, 미등록외국인(혹은 불법체류자)은 10만 명을 상회한다(Vietnamnews.com. 2006. 3. 31). 장기체류자(63만 명)의 약 16 퍼센트가 불법체류하고 있는 셈이다.¹⁾

1) 2007월 1월 현재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 43만여 명이며 미등록외국인노동자(혹은 불법체류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정된다(동아일보 2007. 1. 30).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46%는 중국인이고 이 가운데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조선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시기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추이

연도	2002.3	2003.2	2003.12	2004.1	2004.12	2005.5	2005.6
명	26만6천	28만8천	9만7천	13.7천	18만8천	19만9천	19만7천

자료: 박석운,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에 대하여: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정책의 변화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문. 한국국제노동재단 2005, p. 16에서 재인용.

체류자 가운데 다수가 이주노동자인 동남아시아인의 경우에는 불법체류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2006년 3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인은 총 4만 3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27 퍼센트를 상회하는 1만 2천여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비율이 좀더 높다. 위와 동일한 시점에서 베트남 산업연수생의 수는 총 7천6백여 명이며 이 가운데 32퍼센트를 넘는 2천5백여 명이 불법체류자이다(Vietnamnews.com. 2006. 3. 31). 산업연수생의 3분의 1가량이 계약기간 내에 불법체류를 선택하고 있으며 나머지도 언제든지 불법체류를 선택할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이와 같은 불법체류자의 양산 현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체류가 인권, 노동력의 균형적 수급, 외교안보 등이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인데다가 이를 근절시킬 묘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정부차원에서 불법체류에 대응하는 방식은 외국인 정주화 반대, 노동시장의 유연한 관리, 인권의 보장이라는 (일견 모순된) 대원칙 하에 정책과 제도를 수시로 바꾸는 것이었다(한국노동재단 2006: 16-21; 업코리아 2006. 8. 16).

이러한 대원칙을 고수하면서 한국정부는 최근 이주노동자 수입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1993년에 도입하였던 산업연수생제도를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전환한 것이다.²⁾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는 이주

2) 이 글에서 큰 틀로서 산업연수생제도로라고 지칭한 외국인노동자고용제도의 근간을 이루어 온 것이 연수취업제이다. 연수취업제는 1998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2년 연수 이후 1년 취업(2+1)을 2002년 1월 이후에는 1년 연수 후 2년 취업 (1+2)로 변화하여 왔다. 이 글에서 산업연수생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베트남 노동자는 엄밀하

노동자의 수입과 각 사업체로의 배정을 민간단체인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한다. 이주노동자의 송출도 각 국가의 인력전문회사가 담당한다. 이처럼 민간단체끼리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비리가 많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탈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았다. 반면 고용허가제는 노동자 송출과 수입을 당사국 정부가 직접 담당한다. 또한 수입한 노동자를 신청서를 낸 사업주가 직접 선택하고 국가가 사후 관리를 맡는다. 많은 전문가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비리와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줄고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기대 때문에 고용허가제는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도입을 주장해 온 제도이다(표 3 참조).

〈표 3〉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 비교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생제
체류 가능 기간	취업 3년	연수 1년+취업 2년
도입·관리주체	정부	민간기관
연수생 선정	사업주가 인력풀에서 선택	도입기관이 사업체에 배정
노동권보장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만 적용
내국인 고용기회 보장	1개월간 내국인 우선 구인 노력	없음

자료: 노동부 (중앙일보 2004. 12. 13에서 재인용)

하지만 연구자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법 체류를 감소시키는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국내근로자와 동등하게 규정한 점은 진일보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 안에서도 법 개정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실질적 핵심은 인력 수출국과 수입국의 정부가 주체가 되어 노동력의 이동절차를 투명하고

계 따지면 신분이 연수생인 경우와 취업자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 3>을 참조할 때도 이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간소하게 만들면서 법적인 강제와 징벌은 강화한 데 있다. 그 결과 국가의 지나친 통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은 물론이고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이탈이 과거보다 어려워진 것을 빌미로 강압적인 노무관리를 할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선부른 것이다. 적어도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 제도로는 불법체류 노동자가 양산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합법적인 노동으로는 고생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국땅에서 힘들게 노동을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이주노동을 허락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갚은 뒤 푼돈만을 손에 쥔 채 귀환하지는 않을 것이다.

〈표 4〉 외국인인력수급제도별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수와 임금

	산업연수생제	고용허가제
기간	1993~2006	2004.10~현재
총 인원	25,000~27,000명	15,000명
평균수입	약 월 \$700	월 \$700~\$1000

출처: 베트남 일간신문 자료 종합

올해 초까지 시행되어 온 산업연수생제도에 맞추어 이주노동을 하기위해서 베트남 노동자는 최소한 4천5백 달러 많게는 6천 달러까지 비용을 지출했다. 물론 여기에 합법적으로 계약을 마치고 귀국할 경우 돌려주는 보증금 2천 달러가 포함된다. 하지만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불법체류를 망설이는 노동자는 거의 없다. 여권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조작할 필요가 있는 노동자는 약 6~7천 달러 정도의 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2004년 말부터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비용단가가 좀 낮아지긴

했지만 베트남 노동자가 이주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4천 달러가 필요하다. 물론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다. 노동부를 필두로 각 행정기관을 거칠 때마다 정해진 비용에 더하여 급행료를 지불해야 기일을 맞출 수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에는 없던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하여 수강료도 지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기저기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한다. 심지어 한국의 외교공관에 비자 인터뷰를 받으러 가면 경비도 돈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베트남인 행정직원이 비자업무와 관련하여 1~2천 달러씩 받아 온 것이 드러나 해고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정도이다.

산업연수생의 경우 최저임금에서 시작하여 월 700달러 이하의 돈을 받기 때문에 최소의 생활비를 지출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한국에 오기위해 빚진 6~7천 달러를 갚을 수 있다. 귀환노동자들은 산업연수생으로 갈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의 정식계약을 마치기 6개월 전쯤 비용이 빠진다고 말한다. 물론 하루 12시간씩 일요일까지 잔업을 하면 월 1천 달러 가까이 벌 수 있고 1년 이내에 빚을 갚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하면 힘이 들어 오래 견디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몇 만 달러는 모아 귀환하려는 원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직전 “도망”을 가야 한다. 고생 끝에 잔돈푼을 들고 귀국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좀더 “현명한” 노동자는 오자마자 회사에서 탈출한다. 궁극적으로 불법체류가 불가피하다면 일찍부터 “도망 나와” 돈을 모으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가 이처럼 합법적인 계약기간 중인데도 불법체류를 선택하는 것은 고용주와 협상이 가능한 불법노동시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만난 대부분의 귀환노동자는 회사에서 “도망” 나온 이후 1천~1천6백 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물론 불법계약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폭력적 노동관행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계약에 매여 있지 않은 관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운 직장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하다가 업주가 온정주의(paternalism)를 표방하는 소규모 가족기업에 자리를 잡고 목돈을 만들기 시작한다. 장기간 일한 공장에서의 경험만을 거론하며 합법적 직장보다 불법적 직장이 노동시간을 비롯한 노동조건도 낫다고 말하는 귀환노동자도 많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베트남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조건아래서 지속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이주노동자 본국의 송출과정의 비리로 인한 높은 이주비용, 합법적 이주노동시장의 낮은 임금체계, 최대 3년으로 제한된 계약기간, 불법노동시장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등이 그것이다. 불법체류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만들어진 고용계약제가 계약과 관리절차의 투명성을 높인 것은 분명하지만 귀환노동자가 처했던 이런 조건들을 혁신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베트남처럼 부패가 심한 송출국가의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많은 비공식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임금을 더 높여 보상을 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이주노동의 절차가 투명해지고 불법체류에 대한 징벌이 강화되어도 베트남 노동자는 합법적 계약기간 내에 불법체류를 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법체류를 생산하는 정치경제적 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주노동자의 재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재입국 절차를 유연하게 간소화하는 것이다. 돈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게 하거나 언제든지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일부 이주노동운동가가 지지하는 ‘방문취업제’가 이런 취지를 담은 제도이다(업코리아 2006. 8. 16). 하지만 이 제도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송출국의 관료적 통제와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한 이주노동자는 바뀐 제도에 맞추어 추가되는 여러 명목의 비공식적 비용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합법적으로 귀국한 노동자의 재입국을 우선적으로 허락하여도 현지에서 까다로운 절차와 추가 비용을 부과하면 이주노동자는 귀국대신 불법체류를 선택할 것이다.

귀환노동자가 어떤 정치경제적 조건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개선할 근본적인 모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다. 이주노동이 불균등한 세계 자본주의체제의 산물일 뿐 아니라 제도와 문화가 다른 당사자 국가들의 인적교류라는 복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귀환노동자로 하여금 불법체류를 결심하도록 만든 동일한 정치경제적 조건아래서 삶을 재생산하고 있다.

4.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삶의 사회문화적 재생산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65% 이상이 모여 있는 수도권”(동아일보 2007. 1. 30)을 중심으로 많은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귀환노동자의 진술과 인터넷자료를 참조해보면 서울에는 성수공단 인근인 독섬과 상왕십리에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동대문구 창신동의 봉제공장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지하철 근처에도 소규모 거주지가 산재해 있다. 귀환노동자들은 베트남어로 ‘가 바이(ga bay)’로 불리는 지하철 7호선 근처에 거주지가 많고 모임도 자주 가졌다고 말한다. 서울 북동쪽의 공업지역 인근에 값싸고 교통이 편리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귀환노동자의 진술에 의하면 경기도의 마석, 부천, 안산, 부천, 고양 등에도 2천명 이상이 용기종기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박배균 2004 참조).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이처럼 한국에서 일종의 게토(ghetto)를 형성하며 산다. 이는 열악한 정치경제적 조건을 극복하고 현지에 적응하기 위해서 강한 사회적 연결망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

서도 그러하듯이 특히 불법체류자에게는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박경태, 설동훈, 이상철 1999 참조). 한국의 베트남 이주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불법체류하면서 번 돈으로 친인척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많고(사례 1 참조) 같은 지역출신이나, 직장동료, 산업연수동기생끼리의 모임도 끈끈하다. 시간과 돈이 넉넉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가 거주지 밖의 도시들을 구경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친인척이나 친지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귀환노동자의 경우 한국에 있을 때 100여 명의 '구찌(Gu Chi)' 출신 사람들과 알고 지냈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

〈사례 1〉 친인척을 활용한 이주노동

이모(42세)가 11년 전에 먼저 한국에 들어갔다. 이모가 3년 정도 돈을 모아서 나(32세)와 언니(34세)가 올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었다. 내가 8년 전에 먼저 가고 언니는 1년 뒤에 한국으로 갔다. 당시 언니는 결혼한 상태였고 나는 미혼이었다. 조카와 함께 살던 형부가 5년 전쯤 한국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기르고 계신다. 형부는 기계로 무엇인가를 자르는 공장에 다니고 언니와 이모는 봉제공장에서 일하며 경기도에서 산다. 나도 서울에서 봉제공장을 다니다가 언니 부부와 이모가 사는 곳 가까이로 집을 옮겼다. 일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견딜만하고 이모가 터를 잘 잡아놓아 불편한 것은 특별히 없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는 베트남이 20여 명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거의 해결된다. 공장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한 지 1년이 넘어간다. 결혼하고 6개월 후에 베트남에 돌아왔는데 한국인과 결혼을 했는데도 불법체류 경력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는 비자를 받았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 남편이 백방으로 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는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처리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일이 많다. 구직, 송금, 대출, 문화생활, 고국에서 발생하는 일 처리 등 삶터와 일터에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료와 친지의 정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에 의해 잘 발달된 사회적 연결망 덕분에 귀환노동자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 살면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생

각보다 쉽게 해결하곤 했다고 진술한다. 예를 들어, 송금은 1천 달러 당 10불 정도의 수수료를 내면 직장까지 찾아와 일을 처리해주는 “환치 기업자”를 통하면 된다. 식료품을 파는 베트남인의 집에 가면 베트남 야채는 물론이고 “반쭙(banh chung)”³⁾같은 고유음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새 직장을 구하고 싶거나 직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외로우면 친구에게 파트너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하여 직접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단체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베트남 인도 있다. 이들이 노동관련 시민단체에 상담과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급여, 사업장 변경, 보험, 휴가,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업주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이다. 물론 사안이 특수할 경우 생활상의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제법 있다. 예를 들어,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나왔거나, 한국가게에서 이름을 도용당하여 곤경에 처하거나, 현금카드 사용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려움이라 보긴 힘들 것 같다. 웬만한 일은 이주노동자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내부의 사회적 연결망과 관계를 활용하면서 여러 형태의 일상적 갈등을 경험한다.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개인 신상과 관련된 소문의 진위지를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기혼이건 미혼이건 한국에서 새로 생긴 애정문제를 둘러싸고 옥신각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끼리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여 한국의 사법당국이 개입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특히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이 사기사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한

3) 베트남의 명절에 주로 먹는 찹쌀, 콩, 야채 등을 넣어 만든 일종의 “떡”이다.

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여성이 이주노동자의 가족을 자신의 친인척으로 가장하여 초청해주겠다고 돈을 갈취한 경우도 있다. 한국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주선하겠다는 업자가 어렵게 모은 베트남 여성노동자의 돈을 노리기도 한다. 조직폭력이나 강력범죄에 대한 소문도 무성하다. 안산에서 베트남인에게 강도를 당한 베트남인 전화카드 판매상의 일화나 상대방의 근대를 칼로 자른 조직폭력배의 잔인함이 인구에 회자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기출한 베트남 여성을 유혹하여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성 파트너로 소개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다.⁴⁾

베트남 이주노동자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internal antagonism)’을 만든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세계에 “여기서 잘 살려면 베트남 사람을 조심해야”한다는 담론이 존재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내적 적대감은 고국인 베트남의 사회문화적 분화를 반영하면서 좀더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남쪽 사람은 조직폭력배가 모두 북쪽 출신이라고 믿고 북쪽 사람은 사기범의 다수가 남쪽 사람이라고 말하는 식이다. 베트남전쟁의 격전지로 유명하고 주민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선발할 때 우선순위를 받았던 남부의 ‘구찌(Cu Chi)’ 출신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이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서로의 성생활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과 적대감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차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을 방해한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회에서 불법체류가 일반화되고 내부의 사회적 관계와 연결망이 잘 발달할수록 한국인과의 접촉기회는 줄어든다. 귀환 노동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한국인과 일터 밖의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일은 드물다. 다른 국가의 불법체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예를 들어, P. Kwong 1996), 베트남 이주노동자도 외지인으로서 또는 불법

4) SBS 방송의 ‘긴급출동 SOS 24’에서 방영되었다.

체류자로서 한국인을 깊이 사귀려 하지 않고 한국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피해버리곤 한다.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대상일 뿐이다. 귀환노동자들은 길을 묻거나 물건을 살 때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한다.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한국인과 피상적으로만 접촉하고 드물게 갈등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돈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에 지치고 돈을 모으기 위해 여가활동을 거의 안하기 때문이다. 아침 7시에 기상하여 출근하면 밤늦게 일이 끝난다. 야근이 없는 날은 일요일에 본 장거리를 이용하여 요리를 하고 바로 잔다. 외출도 주말에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소속되면 예외적으로 한국인을 정기적으로 접촉할 수는 있다. 한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에서 한국인과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 이주노동자에게 교회는 “도움을 받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한국인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갈등을 만드는 곳은 주로 일터이다. 이들은 한국인을 주로 일터에서 본격적으로 체험한다. 사장이 몸소 펼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경쟁적 노동환경, 강한 노동강도, 통제된 노동과정에 놀란다. 산업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베트남 노동자에게는 일이 고되고 한국인 관리자의 기대와 질책이 부담스럽다. 노동과정에서 성질이 급하고 폭력적인 한국인을 경험하고, 일과시간이 지나면 돌변하여 정감을 표현하는 한국인에 놀란다.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거나 삭감하는 업주에게 피해를 본 이주노동자의 경험이 입소문을 타면 한국인이 무서워진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회에서는 이런 경험을 기초로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낸다. 일터는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못지않게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다.

이와 같이, 베트남 이주노동자 사회에는 일상적으로 “차별하지 않고 친절하지만” 일터에서 “강압적이고 경쟁적인” 한국인이라는 복합적 이미지가 유포되어 있다. 하지만 귀환노동자들은 대부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답은 한국의 인권단체나 언론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대하여 끔찍한 수치나 사례를 제시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⁵⁾ 인권단체나 언론은 최대한의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인의 자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한국인과 한국사회를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주노동자는 몇 가지의 부정적 사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뻘뻘한 하루 일과, 이주노동자 공동체 내부의 생활, 한국인과의 피상적 접촉, 자본의 통제를 받는 노동과정 등에 대한 복합적인 경험을 기초로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일터의 강압적인 노동관행 외에도 구조적, 정책적, 제도적으로 생산되는 문제들을 두려워하고 강하게 비판한다. 귀환노동자들은 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회사가 불황을 겪거나 파산했을 때라고 말한다. 특히 아시아금융위기 때 힘든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주기적인 출입국관리정책의 변화와 불법체류 단속도 이주노동자로 하여금 한국생활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억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이처럼 베트남 노동자가 한국에서 이주노

5) 언론보도나 인권단체에서 낸 자료를 보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경험은 끔찍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연합뉴스(2006. 10. 24)에 따르면 경남외국인 노동자상담소에서 27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외국인노동자의 55%가 임금체불을 30%가 폭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일반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 넘는 수치이다. 다른 노동단체의 조사의 상담내용에도 임금체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대개 25-30% 정도가 임금체불을 경험하는 것 같다. 이것도 상담을 요구한 이주노동자의 내용만을 통계 처리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동을 하면서 형성하는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한 적대감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차별보다는 자본주의 체제와 국가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정책적,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5. 귀환노동자 삶의 정치경제적 조건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한 해에 적게는 3~4천 달러 많게는 7~8천 달러 정도의 돈을 모은다. 연구자가 만난 30여 명의 귀환노동자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를 벌어들인 사람은 3년 동안 합법적인 연수생으로만 일하며 1만 2천 달러를 모았다.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사람은 불법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11년 동안 7만 달러를 모았다. 이 귀환노동자는 한국체류 말년에 3만 달러를 사기당하지 않았으면 10만 달러 가까이 모았을 것이라고 술회했다. 한국에서 장기이주노동을 하면 베트남 현지 가치를 기준으로 제법 큰 돈을 모을 수 있다.

호치민시의 최저임금은 최근 상승하여 월 55달러이다. 공장에서 일하면 최저임금에서 시작하여 매년 7~8%씩 인상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하면 월 60~100 달러 정도를 받는다. 산업연수생으로 합법적인 이주노동만 하고 돌아와도 현지 일반노동자의 10년 월급을 3년 동안 번 셈이다. 10년 이상 장기체류하면서 돈을 꼬박꼬박 모으면 일반노동자의 평생월급을 벌 수 있다.

귀환노동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산형성지표는 부동산 소유 여부이다. 호치민의 부동산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덕택에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부동산에 그것도 이른 시기에 투자한 노동자는 제법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 귀환노동자가 3년 동안 1만 2천 달러를 벌어들인 1997년 호치민 외곽에 7천 달러를 주고 산 집은 5만 달러를 호가한다. 다른 귀환노동자가 2000년에 4만 달러를 주고 산 집은 두 배로 올랐다.

귀환노동자 중에는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투자한 두 채의 집이 10만 달러를 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만을 보고 귀환노동자 대부분이 호치민에서 계층 상승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전방위로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호치민의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치민 번두리에 위치한 집도 웬만하면 5만 달러가 넘어가고 중심가인 1군이나 5군의 집은 몇 십만 달러를 호가한다. 5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면 호치민 시 외곽으로 눈을 돌려야 할 정도이다(채수홍 2003 참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부동산을 장만한 귀환노동자들은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 때문에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다. 게다가 이주노동으로 번 돈을 가난한 가족을 위해 사용하여 값이 크게 오른 부동산을 구입할 만큼의 돈을 모으지 못한 귀환노동자도 많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귀환노동자는 현지의 일반노동자 월급으로는 쉽게 만들 수 없는 큰 돈을 모으지만 가족을 위해 대부분 지출하거나 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겨우 살 만한 집을 마련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개방이전에 동구나 러시아로 이주노동을 했던 귀환노동자의 경우에는 사회주의체제 아래서 분배받은 집이 있었을 뿐 아니라, 너나없이 가난했던 시절에 상대적으로 큰 돈을 쥐고 있음을 자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방정책(Doi Moi)으로 시장원리가 도입되고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부가 일부계층에 편중되고 있다. 이런 정치경제적 상황 하에서 일반노동자가 해외이주노동만으로 평생 먹고 살만한 재산을 장만하거나 가시적인 계층상승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다. 결국 귀환노동자는, 부동산이 있건 없건, 귀국 후에 계속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실직상태에 있는 귀환노동자가 이주 많다는 점이다. 특히 부인이 직장에 다니거나 (대개 남편이 모아온 돈으로)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귀환노

동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표 1 참조). 이들은 이주노동을 하는 동안 나이가 들어버렸고 해외에 나가있었던 공백도 매우기 쉽지 않아 취직이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호치민과 인근의 노동집약적 공장이 최근 인력난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궁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베트남의 국제무역기구(WTO)의 가입을 기점으로 호치민 인근은 물론이고 남부의 다른 지역에도 공단이 늘어나면서 호치민 일대의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귀환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는 진정한 이유는 한국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임금 때문이다. 한 해를 꼬박 일해야만 한국에서 받던 한 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급여가 높은 관리직을 구하거나, 생계가 막막하거나, 미혼여성으로서 가족을 계속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을 한다. 하지만 이들도 한국과 비교하여 급여가 턱없이 낮아 적응하기 힘들다고 고백한다. 귀환노동자가 이처럼 베트남 노동시장에서 미아가 되고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헛바람이 들었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귀환노동자의 자발적 실업을 이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들의 노동의욕을 꺾고 있는 주범이 10년이 넘도록 노동자의 저임금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베트남의 경제구조이기 때문이다. 인력난과 파업의 확산으로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의 최저임금이 근 6년 만에 40달러에서 55달러로 상향조정되었지만 베트남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인도네시아나 중국과 비교해도 훨씬 적다(한국국제노동재단 2006: 28-30 참조). 호치민에 있는 노동집약적 공장의 평균임금은 최근 4~5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이제야 평균

6)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두 가지 점을 언급한다. 첫째, 호치민의 서비스업중 임금은 상당히 올랐다. 불과 4-5년 전만 해도(1달러 당 15,000 동의 환율 기준) 월 50~100만 동(33~66달러)을 주면 구할 수 있던 인력이 지금은 적어도 100~200만 동(66~132달러)은 주어야 한다. 서비스부문이 급속하게 팽창하며 인력난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이 고급인력을 고용하는 곳의 월급 상승폭은 훨씬 크다. 불과 4-5년 전 만해도 300~500달러 정도 받았던 외국은행의 베트남 직원이 지금은 평균 800~1000달러 가까이 받고 있다. 둘째, 호치민의 노동집약적 공장들

임금이 70~1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도이다. 저임금 체계가 지속되면서 개방초기에는 웃돈을 주면서까지 경쟁적으로 얻고자 했던 공장의 일자리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귀환노동자가 고국에서 일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은 이와 같은 정치경제적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례 2〉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는 귀환노동자

한국에서 9년 동안 일한 뒤 5년 전에 호치민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있을 때는 미혼이라 누나에게 송금하고 한국에서 사귀는 베트남인 애인에게도 돈을 많이 썼다. 주로 썼다. 귀국해서 조그만 집을 장만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결혼식을 치루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다. 공장에서 일하거나 월급을 생각하면 한심했다. 10년 전만 해도 EPZ(수출자유공단)이나 IZ(산업공단)에서 서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공단 안이) 밖의 월급보다 못하다. 일을 안 하면 몸도 피곤하고 남은 돈도 없어지겠기에 160~320만 동(약 100~200불)을 받고 가스통 배달회사, 가방 끈 만드는 회사, 화장품 대리점, 식당, 쇠고기 수입회사, 미싱공장 등에서 잠깐씩 일을 했다. 출퇴근이 힘든 거리에 있거나 월급이 너무 적었다. 베트남에서는 이 정도 월급이면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한국 말도 할 줄 아는데(사실은 덕택에 월급을 많이 받은 편이다) 일은 힘들면서 월급은 터무니없이 적다. 지금은 아내가 시장에서 야채를 판다. 착해서 불평을 안 한다(부인은 연구자에게 많은 불평을 했다). 한국으로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절실한데 나이가 40이 넘어 받아주는 곳이 없다.

이와 같은 고국의 정치경제적 조건 하에서 대부분의 귀환노동자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으려고 방황하며 불연속적인 실업을 경험한다. 소규모 자본으로 자영업을 경영해보기도 하고, 한국과 연계된 사업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현지의 공장에 몇 개월 다녀보기도 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해 보기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하

도 2005년 말부터 인력난과 노동자의 저항이 심해지면서 임금상승압력을 강하게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공장노동자의 임금을 이전처럼 억제하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만 어느새 들어버린 나이와 불법체류 경력이 장애가 된다. 자격에 문제가 없어도 통과해야 하는 각가지 관료적 절차가 만만치 않다.

6. 귀환노동자 삶의 사회문화적 재생산

귀환노동자의 사고와 행위는 한국을 경험하기 이전과 다르며 이주노동을 경험하지 않은 베트남인의 그것과도 구별된다. 이들은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베트남에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준다. 국제결혼 배우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예를 들어, 이수자 2004; 이해용 2005; 전형권 2006)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귀환노동자들도 문화혼성성과 타자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실천 속에서 주체성을 만들어간다. 장기간의 외국생활, 고국에서의 사회문화적 공백, 베트남의 정치경제적 현실 등은 귀환노동자가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성격의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실천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귀환노동자는 서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필요할 때마다 모임을 갖는다. 연구자가 짧은 현지연구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귀환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이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귀환노동자들은 이처럼 이주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맺어진 새로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국을 이야기하고, 한국말을 떠올려보고, 한국을 그리워한다. 예를 들어, 연구자가 동석한 모임에서 이들은 “처음에는 맛이 없던 한국 쌀이 지금은 더 맛이 있다”거나,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팔던 김치, 닭고기, 튀김이 그림다” 식의 말을 주고받았다. 연구자에게도 가능하면 한국말로 설명하거나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다. 한국에서 타자로서 겪었던 차별적 경험을 떠올리기 보다는 고국에서 방황하는 자신의 생활을 정신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기억을 재구성하려는 듯 보였다.

이런 점을 의식하여 연구자가 면접을 시작하면서 귀환노동자에게 주로 던진 질문은 “한국에서 어떤 종류의 좋지 못한 경험을 했는지”이다. 그 결과 한국인 업주나 노동자에게 받은 차별이나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겪은 일화에 대한 다양한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들은 좋지 못한 경험을 진술할 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었다”거나 “이해하고 적응했다”는 말을 덧붙이곤 했다. “비슷한 나이의 한국인 동료 노동자가 ‘베트남이라고 놀렸지만 악의가 없음을 알고 친해지고’, ‘업주가 성격은 급했지만 일이 끝나면 친절하게 보살펴 주고’, ‘한국인 동료가 술을 많이 먹어 힘들었지만 베트남인이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라는 식이다. 연구자가 억울하게 당한 경험을 꼬치꼬치 캐면 “어느 곳에 가나 소수의 나쁜 사람은 있기 마련 아니냐”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정말 나쁜 한국인을 만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지는 않았다는 인상을 갖게 만들었다.

대조적으로, 한국의 좋은 점은 베트남과 비교하면서, 가능하면 한국어 단어를 사용하면서, 힘주어 말한다. 이들의 기억에 따르면 한국은 선진국가다.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깨끗함과 편리함을 즐길 수 있는 나라이다. 공장 앞을 지나는 낫선 중학생이 사장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예의바른 나라이다. 평소엔 무뚝뚝하지만 월급을 타면 “소주와 삼겹살을 쓰는 낭만적인 남성”이 있는 나라이다. 지하철에서 길을 물으면 표를 사는 것을 도와주는 친절한 사람이 많은 나라이다. 단골로 가는 가게의 주인아주머니가 정겹게 장난을 치는 재미있는 나라이다.

이들이 재구성한 (어떤 의미로는 왜곡한) 기억의 진술을 듣고 있노라면 연구자와 같은 한국인은 어리둥절함을 느낄 수 있다. 미디어나 학술적 논문에서 국제결혼여성과 이주노동자가 억압을 받으면서 저항하는 소수자로 재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동남아 출신 배우자나 노동자는 주로 부당한 처우와 폭력의 희생자이거나 범죄를 저지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로 재현된다(이해용 2005: 5-6). 이러한

이미지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귀환노동자가 표현하는 한국에 대한 과찬과 그리움은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할 수 있다. 연구자가 한국인이라 일부러 칭찬을 하는 것일까? 한국이 정말 베트남보다 살기 좋은 것은 아닐까? 이주노동자의 삶에 대한 한국인의 이해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 적절한 대답일 것이다. 이들이 한국에서 느끼고 진술했던 한국과 귀환 후 기억하고 재현하는 한국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귀환노동자의 경계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삶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귀환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억을 재구성하여 정신적 위안을 찾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귀환노동자의 대부분은 다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한국으로 돌아가 “힘들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귀환노동자는 매우 드물다. 하지만, 앞 절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들이 합법적으로 다시 한국에서 이주노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적다. 대부분 불법체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부패한 베트남 관료주의의 장애물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40세인 나이 제한에 걸리는 노동자도 많다. 일부 귀환노동자는 과거에 같이 일했던 한국인 업주로부터 언제든지 초청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아내고도 법과 관료주의의 문턱을 넘지 못해 한국행을 포기한다.

여성 귀환노동자가 한국남성과 결혼하기로 결심하는 배경에도 이주노동을 지속하려는 동기가 숨어 있다. 연구자가 만난 여성 귀환노동자 가운데 일부는 한국에 남편이 이미 있거나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사례 1 참조). 이들의 배우자는 모두 노총각이고 과거에 동료였던 한국인 노동자이다. 배우자가 맞벌이를 원한 경우도 있지만 결혼의 전제조건으로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각서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호치민 총영사관의 비자업무를 폭증시키며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여성 가운

데는 귀환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⁷⁾ 이들 가운데는 <사례 1>처럼 과거의 불법체류신분 때문에 이미 결혼을 하고도 한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을 수 없어 애를 태우는 여성도 있다.⁸⁾

한국 재입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귀환노동자는 그 대안으로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업주를 위해 일하거나 동업을 시도하기도 한다. 호치민의 한인 가운데는 귀환노동자가 자신이나 한인 고객과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평균보다 높은 임금을 주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 연구자가 만난 귀환노동자 가운데 많은 수가 식당, 무역회사, 유통회사, 노동집약적 공장 등 다양한 종류의 업종에서 한인업주를 위해 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업무를 잘 이해하면 서도 통역에 지장이 없을 만큼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 두곤 한다. 한인업주들의 견해에 따르면, 귀환노동자가 대부분 학력이 낮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과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국어 능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업주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일에 지장이 없는 “한국어전공 대학졸업자를 쓰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하다.” 한인 업주가 사업의 파트너를 선택할 때도 한국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한인업주와 귀환노동자가 서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양자의 관계는 악화되기 십상이다. 이런 연유로 귀환노동자는 자신의 기

7) 한국남성과의 결혼희망자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메콩델타 유역의 농촌치녀도 잠재적인 이주노동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돈을 벌어 가난한 친정 식구를 부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남성이 베트남 신부의 노동을 원치 않아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최근에는 베트남신부의 출산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가 신문에 보도되기도 했다(대전일보 2007. 3. 11 참조). 이 통계가 베트남 여성이 조선족 여성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처럼 해석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8)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과거에 불법체류를 한 경우 최장 5년까지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를 하고 들어와도 이 규정은 적용가능하다. 비자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은 불법체류 전과가 있는 여성이 한국남성과 실제로 결혼했는지에 대하여 서류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의 속에 남아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인’보다 호치민 한인을 좋지 않게 평한다. 자신의 한국어를 한국의 공장주는 알아들었는데 호치민의 한인 업주는 왜 알아듣지 못하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호치민의 한인은 한국의 업주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해주면서 자신을 멸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불평한다. 설상가상으로, 일상에서 베트남인과 같음을 벌이거나 이주노동을 주선하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는 호치민 한인을 직간접적으로 접하면서 귀환노동자의 호치민 한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강화된다. 이들에게 기억 속에서 재구성된 한국의 한국인과 일상 속에서 부딪기며 갈등하는 호치민의 한인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귀환노동자는 현지에서 끊임없이 한인과의 관계를 모색하지만 대부분 기대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경험한다(채수홍 2006 참조).⁹⁾ 귀환노동자의 주변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본다. 베트남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면서 별다른 성과도 없이 한국인과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귀환노동자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귀환노동자가 마치 자신은 베트남인이 아닌 것처럼 한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베트남 사회를 비판하면서 한국인과의 관계를 과시하려는 행동에 거부감을 느낀다.

〈사례 3〉 귀환노동자에 대한 가족의 비판

남편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처음 몇 년은 참았다. 남편이 한국에서 애써 번 돈으로 결혼도 했고, (호치민의 푸뉴언 Phu Nhuan군에 3층짜리) 집도 장만했다. 집 일층을 막아 미장원도 낼 수 있었다. 지금은 미장원 벌이도 시원치 않은데 (남편이) 일은 않고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인) 친구들과 전화하거나 같이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는 걸 보면 화가 난다. 며칠 전만 해도 호치민

9) 교회를 통해 한인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랐다. 선교를 목적으로 한인이 귀환노동자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돕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만난 귀환노동자 가운데는 여호와증인이 여럿 있다. 이들 가운데는 교회를 통해 한국과 무역이나 관광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귀환노동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 한국에 사는 한국인이자 호치민의 한인이라고 볼 수 없다.

에 사는 별 볼일 없는 한국인과 한국에서 일한 적 있는 여자가 같이 와 떠들고 갔다. 화가 나서 손님들에게 인사가 안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자는 척 했다. 한국인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가족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한국인을 위해 일한다고도 하고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다 헛일이다. 언제까지 돈만 까먹고 저털 것인지 짜증이 나서 요즘은 자주 다룬다.

베트남사회에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시도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 담론은 많지만 귀환노동자의 사회문화적 행위를 비판하는 담론은 쉽게 접할 수 없다. 하지만 <사례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귀환노동자와 일상적인 접촉이 있는 가족이나 친지의 경우에는 입장이 다르다. 처음에는 귀환노동자가 한국과 한국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국적 경험의 산물로 인정해주고 이들의 한인과의 관계 맺기를 부럽게 바라보기도 한다. 하지만 귀환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한국에서의 향수에 젖어 한국인과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에 차츰 거부감을 갖게 된다. 일상의 맥락에서 귀환노동자와 친지 사이에 ‘사회문화적 거리감(sociocultural distance)’이 형성되는 것이다.

귀환노동자는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국 또는 한국인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문화정치학을 실천한다. 하지만 호치민의 한인은 물론이고 주변의 친지로부터 적극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남는다. 귀환노동자가 서 있는 경계인으로서의 위치 때문이다(Walter, Bourgois, and Loinaz, 2004 참조).

7. 결어

귀환노동자가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직면하는 정치경제적 조건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실천에 주목해보면 이들이 고국과 이주대상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시각과 감정을 갖게 되는 과정과 이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사점은 동아시아 역내의 이주노동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공동체¹⁰⁾의식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룬 귀환노동자의 사례는 이주노동이 단순한 경제적 활동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경험을 통해 경계인을 만드는 과정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경계인으로서 귀환노동자가 가진 정치적 의식이 일상적 삶의 맥락 속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초국가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귀환노동자가 자신에게 현재 주어진 정치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조건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가를 보면 이들이 가진 정치의식의 중요한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귀환노동자는 고국에서 자신이 한국에서와 다른 현실에 놓여 있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고 방향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주노동자의 대응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이다. 먼저 귀환노동자는 이주노동대상국가에서의 경험을 기억 속에서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을 성찰한다. 이와 동시에, 이주노동대상국가로의 재입국을 시도하거나 이주노동대상국가에서 형성한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어려운 정치경제적 상황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귀환노동자의 이러한 시도는 고국과 이주대상국가의 무관심과 다양한 형태의 통제에 의해 좌절되곤 한다. 양국 모두 귀환노동자가 초국가적 경험을 일과 삶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양 국가의 주요한 관심은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10) 인류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공동체(EAC)라는 용어 자체가 생뚱맞게 들릴 것이다. 문화적으로 매우 이질적인 동아시아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하는 근거도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비판적 접근은 김광익(2005: 332-339)과 오명석 외 3인(2004)이 쓴 논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유럽공동체(EU)처럼 동아시아공동체도 경제, 안보 등의 실익을 위해 다른 지역협력 체제에 대응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구성주의적 입장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귀환노동자의 저항의식이 자본 못지않게 관료적 통제 제로 자신의 삶을 속박하는 국가를 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때때로 귀환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자본보다, 자신을 이주대상국에서는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귀국 후에는 미아로 만들어 벌이는 국가의 노동정책, 관료적 부패, 법적 제도에 대하여 더 큰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귀환노동자는 양국에서 경험하는 자본의 횡포와 사회문화적 차별 못지않게 국가가 (때론 이주노동자를 돕는 시민단체까지)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하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예를 들어, 귀환노동자는 최근 한국에서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베트남 정부의 관료적 통제와 부패를 약화시키지 못하는 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노동을 하는데 왜 어려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이주 노동 절차만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지 의문을 표시한다. 차라리 한국에 있을 때 한국어 학습을 지원하고 귀국 후에 한국어 능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귀환노동자의 이와 같은 반감과 저항의식이 이주노동 경험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결과가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여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본만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어 저항하는 것이다. 이런 저항의식은 각 국가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도하는 동아시아공동체 차원의 인적교류가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노동계급의 욕구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가중심의 반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개발담론에 의존한 인적교류에 대한 비판이 귀환노동자 사이에서 싹트고 있는 것이다. 귀환노동자의 이러한 비판의식은 자신의 초국가적 경험이 가진 긍정적 의미를

인정하고 귀중한 자산으로 취급하는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지역주의”(Archarya 2003)에 대한 열망과 닿아 있다.

참고문헌

김광익

- 2005 “문화공동체로서의 동아시아의 필요성과 가능성”,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과 전망』, 한양대학교 출판부, p. 329-367.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 2006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공동체: 평가와 과제. 2006년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박경태 · 설동훈 · 이상철

- 1999 “국제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1997 보고서.

박배균

- 2004 “세계화와 있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역사지리학회지』 10권(4), 통권 28호: 800-823.

설동훈

- 1998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노동력의 국제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오명석, 한경구, 장수현, 최호림

- 2004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4-10(통일연구원 2004).

이수자

- 2004 “이주여성 다이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38: 189-219.

이해용

- 2005 “중국조선족 기혼여성의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주체성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전형권

- 2006 “모국의 신화, 노동력의 이동, 그리고 이탈: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다이어스포라적 해석”, 『한국동북아논총』 38: 135-160.

채수홍

2003 “호치민 시의 개혁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비교문화연구』 9(1): 75-108.

2006 “호치민 한인의 민족정체성: 사회경제적 분화와 현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옥표 편, 『해외한인의 민족관계』, 아카넷, p. 219-272.

한국노동재단

2005 『고용허가제 1년, 외국인력 정책 및 취업교육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구제노동재단.

한국노동재단

2006 『베트남 진출기업 노무관리 안내서(개정판)』, 한국국제노동재단.

황인원

2006 “동남아 지역주의의 확대에 대한 ASEAN의 인식과 전략”, 한국 동남아연구소-제주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발표집: 29-45.

Acharya, Amitav

2003 “Democratization and the Prospects for Participatory Regionalism in Southeast Asia,” *Third World Quarterly* 24(2).

Frobel, Folker, Jurgen Heinrichs and Otto Kreye

1980 *The New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Structural Unemployment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wong, Peter

1996 *The New Chinatown*, New York: Hill and Wang.

Smith, David A

1996 “Going South: Global Restructuring and Garment Production in Three East Asian Cases,” *Asian Perspectives* 20(2).

Walter, Bourgois and Loinaz

2004 “Masculinity and undocumented labor migration: injured latino day laborers in San Francisco,” *Social Science and Medicine*

59: 1159-1168.

<신문 자료 및 기타>

대전일보 2007. 3. 11

동아일보, 2007. 1. 30

업코리아, 2006. 8. 16

연합뉴스, 2006. 10.24

중앙일보 2004. 12. 13

Vietnamnews.com 2006. 3. 31

기타 베트남 일간신문 자료들

한국총영사관 비자업무현황 자료

〈Key concepts〉: Vietnamese returnees, immigrant work, East Asian community, cultural politics, transnational experience

Vietnamese Returnees from Immigrant Work in Korea, Their Life and Human Exchange in East Asia

Chae, Suhong*

Vietnam has officially exported more than 40,000 workers to Korea since 1993 and many of them chose to be illegal workers and endured hard life to earn money for around 3 to 11 years in Korea. After returning home, they would also find difficulty adapting to the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of their own country. This article deals with the Vietnamese returnees from Korea, on the one h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their transnational experiences, social relations, and culture. On the other hand, this article also seek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of the workers' experiences in both countries to the development of human exchange in East Asia. For the purpose, based on the fieldwork mainly in January 2007 in Ho Chi Minh c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several things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examines economic conditions, social relations, and cultural politics that Vietnamese immigrant workers experience in Korea. Second, it explores economic hardship the returnees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chaeology & Cultural Anthrop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ncounter in their homeland and how they respond to it in their transforming social relations and culture. Third, it seeks to interpret how the returnees' transnational experiences and hybrid social cultural life in so called "in-between space" produce their distinctive consciousness and practice. Finally, this article discusses what are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e returnees' experience, consciousness and practice not only to the development of human exchange but also to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Community' in East Asia.

Vietnamese returnees from Korean immigrant work would respond in two ways to their own difficult situations in homeland. They reconstruct their memory on the experiences in Korea, which influences on their critical evaluation of life conditions in homeland. They also attempt to reinforce their relationship with Koreans in Vietnam or/and to find a way to go back to Korea. However, insofar as the governments of both countries are not interested in helping the returnees and utilizing their transnational experiences, their various attempts are usually not so successful. In the circumstances, the returnees express antagonism against governmental ignorance and control of their life more than capitals utilizing their labor power. The returnees' political consciousness implies how immigrant workers' experiences can be an obstacle rather than an medium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